



3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 출범

전주매일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음 8월 27일) 제31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함께하는 전북도 청소년정책 협약식에 김현숙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가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한 청소년 성장 위해 '맞손'

전북도-여가부, 청소년 정책 성공적 추진 협력 강화

호남권디딤센터 건립 2026년 준공 목표 차질없이 지원

내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협력도 포함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여성가족부가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각종 청소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새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첫 번

째 업무협약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등 청소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이번 협약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자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활성화, △호남권 디딤센터 건립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난 8월에 유치한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건립되어 2026년에 개원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협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지역 청소년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적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청소년들의 성장과 보호,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 협약을 토대로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

고받고 밝게 성장하여 글로벌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투입과 출중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협약체결 후 부안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이동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대회 현장을 점검했다. /김경수 기자

정부, 세종 제외 지방 광역 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6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 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

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방권에 대해선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된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며,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뉴시스

방송통신중, 덕일중으로 이전

전라중 에코시티로 이전 따라 2024학년도부터... 4층에 8개실

방송통신중학교가 전주덕일중학교로 이전한다.
전주덕일중은 유휴 교실 활용으로 방송통신중학교와 교실 분리가 가능하다.
전라중학교가 에코시티로 이전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덕일중으로 옮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는 덕일중학교 4층에 8개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요청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고, 교실, 교무실 다목적실 등에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관련 예산도 지원된다.
한편 방송통신중학교는 중학교 학력이 없는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 소외집단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 지속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다채로운 전주, 맛에美치다'

전주비빔밥축제, 내달 6~10일 전주향교 일원서
첫날 '개맛식' 시작으로 특별체험프로그램 준비

맛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축제인 '2022 전주비빔밥축제'가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주향교마을 향교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새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4회 전주비빔밥축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재현 전주비빔밥축제 총감독과 김성군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2 전주비빔밥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올해 축제의 특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전주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미식축제로 열리는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첫날 '개맛식'을 시작으로 비빔밥을 주제로 전주의 다양한 맛을 느끼고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전주의 맛을 여는 '개맛식'에서는 '향교김치-boy' 공연과 '비빔달리기' 등 사전행사를 시작

로 △비빔밥재료를 활용한 '비빔아트월' △퓨전국악무대 등 축하공연인 '비빔콘' △2022전주비빔밥축제가 제시하는 신개념 공연 대회인 '비빔김밥경연대회' △'비빔아카이빙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주향교에서 즐기는 피크닉인 '비빔피크닉' △핑거푸드와 음료 즐기는 DJ 파티인 '비빔파티' △맥주와 비빔음식을 즐기는 '비빔파티' △무선 헤드셋 영화관인 '비빔영화관' △동문길에서 진행되는 '비빔테이블' 등도 올해 비빔밥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20여 가지 상시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재훈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